전법 일기

"스님은 MBTI 뭐예요?" 이방인서 멘토 되려면

처음 성신여대 대학생 법회를 맡고 솔직히 많이 긴장했다. 출가하고 20여 년간 노보살님들만 만났지 대학생을 상대해 본 일이 없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다. '여학생들은 예민하지 않을까…' 한아름 걱정을 안고 캠퍼스로 향했다.

나름대로 준비한 명상과 교리 설명, 마음 나눔 등 한 시간여의 법회를 마무리하며 법우들한테 소감을 물어봤다. 다행히 긍정적으로 대답해준 덕분에 안도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뒤풀이 식사자리로 향했다. 그때부터가 고난의 시작이었다.

"스님, 뭐 좋아하세요?" "좋아하는 색깔은요?"라는 물음으로 시작한 사석은 '스님의 상'으로 무장한 나에게 대학생 포교에 대한 무력감을 주기 시작했다.

"스님 주말엔 주로 뭐 하세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굳이 생각해본 적 없던 삶이었고, 주말이 딱히 구분되지 않는 승려생활이라 대답해주기가 난감했다. 그 중 무난한 질문인 것 같으면서도 나를 더 좌절하게 만든 게 있었다.

"스님은 MBTI가 어떻게 되세요?"

"글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요즘 대학생들은 첫 만남에서 편안하게 나누는 대화 주제인데 나만 '이방인'이었다. 불교를 전하겠다는 마음에 '스님상'으로 무장한 채 명상과 교리라는 딱딱한 내용만 준비해 온 것이 후회됐다. 그래놓고 학생들의 멘토가 되겠다니 얼토당토않은 포부인 셈이었다.

지금은 MBTI를 물으면 서슴없이 "ENFJ"라고 말한다. 대학생법우들은 듣자마자 "아~" 하고 바로 공감한다. 흔히 '선도자형'이라고 하는데, 공감능력 '끝판왕'에 뭔가를 자꾸 바꾸려 하고 항상 사람을 탐구하는 사람이란다. 그래서 지금 대학생 지도법사도 하는가보다.

요즘은 인간관계에 대한 내용이나 공부 잘하는 법, 자기관리에 관한 동영상 강의도 자주 본다. 그러다보니 정해진 법회보다 뒤풀이 시간이 학생들에게도 훨씬 재밌고 유익해졌다. 식사 후 차 한 잔 할 때는 더 깊은 고민상담도 한다. 자연스레 남자친구 소개도 하고, 친구와 있었던 일들, 심지어 친구의 친구 고민까지 얘깃거리가 되어 즐거운 '맛수다(맛있는 수다)'로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눈높이가 같아야 마음을 열고 나누기 수월하다. 너무 강한 표현처럼 느낄지 모르겠지만 요즘 대학생들은 세상이 전쟁터 같단다. 세상 편한 것 같아보여도 불안한 마음은 더 커졌다. 잘해야 한다는 강박관념도 있다. 산사에 있을 땐 몰랐는데 도심포교를 하다 보니 자연스레 공감대가 생겼다.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다보니 말에 힘이 생겼다.

'하루 5분 명상, 혹은 108배, 감사일기 쓰기.' 너무 익숙해서 간과하기 쉬운 이 수행이 바쁜 대학생들에겐 닻과 같은 역할을 한다. 바다 위에 떠다니는 것 같지만 닻을 내린 배는 파도가 쳐도 안전하다. 치열하게 삶을 고민했던 인생의 선배로서 밥 한 번, 차 한 잔과 함께하는 '수다'로 오늘도 전법하러 간다.



성신여대 불교동아리 지도법사
시현 스님



김형중의 깨달음의 노래 ③ 어느 비구니스님의 오도송

道는 가까운 곳에 있다

봄은 매화나무 위에 피어있네
진종일 봄을 찾아 산으로 들로(盡日尋春不見春)
짚신이 닳도록 헤맸어도 봄은 없네(芒鞋踏遍隴頭雲)
지쳐서 집에 돌아오는데 처마 끝에 핀 매화 향기 미소 지으니(歸來笑拈梅花嗅)
봄은 이미 나뭇가지 위에 활짝 피었네(春在枝頭已十分)

출전: 〈학림옥로(鶴林玉露)〉 권6

중국 송나라 때 나대경(羅大經)이 지은 〈학림옥로〉에 수록된 이름을 모르는 비구니스님의 칠언절구 오도송이다. 불도(佛道)를 찾아가는 구도의 과정을 봄을 찾아가는 고행과 지쳐서 돌아오는 길에 매화꽃을 발견하고 마침내 봄을 찾는 것에 비유하여 읊은 전형적인 선시이다. '봄을 찾아가는(尋春)' 과정이 '소'를 찾아가는 '십우도'의 심우(尋牛), 기우귀가(騎牛歸家), 반본환원의 과정과 흡사하다.

꿈에서 파랑새를 찾아 헤매던 아이들이 꿈에서 깨고 보니 자기들이 기르던 비둘기가 파랑새였다는 것을 깨닫는 다마테 틀링크의 동화 '파랑새'가 연상되는 시이다. 일본 하이쿠(17자의 정형 短詩)의 성인 바쇼(芭蕉, 1644~1694)도 "향기를 따라 매화 찾다 보았네 곳간 처마 끝"이라고 읊은 시가 있는데, 이 오도송을 보고 감동하여 용사(用事: 남의 시의 시구, 내용을 인용하여 시를 짓는 기법)한 것으로 추측된다.

전반부 1·2구는 봄을 찾는 '심춘(尋春)'의 구도수행을 묘사한 것이고, 후반부 3·4구는 집에 돌아와 처마 끝에 활짝 피어 '미소 짓는 매화꽃(笑梅)'에서 봄을 찾는다. '봄'은 '행복'이고, '깨달음'이고, '마음'을 상징하는 다의(多義)적인 뜻을 내포하고 있다.

1구의 '심춘(尋春)', '불견춘(不見春)'의 구도에서 4구의 '춘재지두(春在枝頭)'에 이르는 '봄(春)'이 반복되는 시어가 울림의 리듬감이 주어 강력한 깨달음을 연상시킨다. 이 세상이 그대로 진실된 세계인 사사무애(事事無碍)의 법계(法界)라는 것과 꽃피고 새가 우는 이 자리가 궁극의 본래자리인 반본환원(返本還源)의 경지인 것을 읊고 있다. 구도 수행과 견성 오도(見性 悟道)가 완벽하게 잘 구성돼 한 폭의 동양화를 그린 섬세하고 선적인 풍취가 느껴지는 최고의 선시이다.

봄 찾기 위해 산과 들로 다녔으나
집 처마 끝에 핀 매화꽃서 봄 찾아
구도과정 그려내…십우도와 유사

인생은 추운 겨울과 같은 고해(苦海)이다. 봄이 오면 온갖 꽃들이 만발하여 아름다운 화엄세상을 만든다. 그 중 '매화'는 추운 겨울의 역경을 이겨내고 제일 먼저 꽃을 피워서 봄소식을 알리는 전령사로써 역시 '봄'을 상징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군자 중에서도 강인함과 지조가 으뜸인 매화를 사랑한다. 퇴계 선생은 도산서원에 매화를 심어놓고 매화꽃이 필 때면 밤마다 달빛 아래서 매화 향기에 취해 시를 읊었다.

선가에서 깨달음의 내용은 사람이 사는 삶의 문제와 세상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주체인 마음에 대한 반야지혜이다. 인간의 일상을 떠나면 도가 아니다. 맹자는 "도는 가까운 곳에 있다"고 하였다. 이 오도송의 주제는 비구니스님이 그토록 찾던 봄을 자기 집 처마 끝에 활짝 핀 매화꽃에서 찾는 것이다. 자기 집 보배 창고 속에 있는 본래마음인 자성(불성)을 찾는 것을 견성(見性)이라고 하며, 그 마음으로 살면 중생이 부처가 된다.

이 글을 쓰면서 필자도 매화 화분을 바라보며 봄을 기다리는 마음을 담아 '봄'의 시를 지어 본다.

봄이 오네 처마 끝에 매화가 피고 있네
봄바람이 꿈을 담아 오고 있네
창문을 열고 보라 온 세상이 온통 화엄정토인 것을
눈을 뜨고 보라 곳곳마다 부처가 용출(湧出)하는 것을

〈문화평론가〉

기자칼럼

3원 통합, 권력 집중이 아닌 이유

조계종의 1994년 종단개혁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불교 자주의 길을 연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종헌종법 개정을 통해 행정과 입법, 사법권을 나눠 '삼권 분립'을 이루고, 교육원과 포교원을 별원으로 구성해 혼란한 시기에도 교육과 포교라는 종단적 사명이 끊이지 않도록 했기 때문이다.

2024년의 조계종은 이런 교육원과 포교원의 역할을 총무원으로 일원화하는 조직개편 작업을 추진 중이다. 시대변화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해 30년간 이어온 3원 체제를 총무원 1원 체제로 통합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교육원과 포교원이 총무원으로 흡수될 경우 총무원장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더해 1994년 종단개혁의 결실이 과거로 후퇴한다는 과격한 견해도 있다. 하지만 이는 종단개혁의 핵심을 비껴간 단편적인 해석이다.

종단개혁 이전 총무원장의 주요 권력 가운데 하나는 전국교구 본·말사 주지 임면권이었다. 이를 이용해 중앙종회 장악이 가능했고, 종회는 총무원 하부기관으로 전락했다. 또 주지 임면권을 총무원장이 독단적으로 행사하면서 금품수수 의혹도 늘 뒤따라 다녔다. 결국 1994년 개혁회의는 종단개혁으로 권력을 분산하면서 총무원장 독점체제에 대대적인 수술을 한 셈이다. 본사주지의 중앙종회의원 겸직 금지, 본·말사 주지 임기 보장 등도 총무원장의 권력 분산과 교구중심제를 위한 조치였다. 총무원장 권력 분산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교육원과 포교원의 별원화는 사실상 별개 사안이다.

1990년대 한 해 4~500명에 달하던 출가자는 이제 100명도 채 되지 않는다. 불교인구 감소세도 여전하다. 교육원과 포교원이 별원으로 있다고 해서 해결 가능한 문제가 아니다. 승적·법계 업무와 승려교육·연수 업무가 총무원과 교육원에 분산돼 업무효율이 떨어진다는 등의 실무적인 문제는 차치하고, 별원의 기획·추진력이 부족하다면 총무원과 한 몸으로 현안을 풀어가는 것도 방법이다.



윤호섭 편집국 차장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일일시호일

"나날이 굳는 간 고통보다 더 큰
사진으로 만난 7살 딸 향한 그리움"

네팔 이주민 키란씨, 간 수치 일반인 40배 · 경화
수술받았으나…병원 빚 1400만원에 앞날 막막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